



■ 업체탐방 / 삼화당정판(주)

## 산학협력 부설 연구소 통해 새로운 도약 이룬다



인쇄사를 비롯한 출력실, 기획사 등 인쇄, 출판업종 관련업체들이 모여 있는 서울 성수동에서 삼화당정판(주)(대표이사 이석남)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외관에서부터 인쇄회사라기보다는 연구소 건물인 듯 깔끔한 분위기의 빨간 벽돌색 건물외관, 잘 정리된 주변 환경, 예술적인 그림이 그려진 회사의 복도, 종업원들의 심신단련과 휴식을 위해 골프연습장까지 갖춰 놓은 공원처럼 잘 꾸며진 옥상 휴게실 등. ‘삼화당정판’이라고 건물 외벽에 새겨진 큰 상호명만 없다면 인쇄사의 사옥임을 짐작하기 어렵다.

지난 1985년에 설립된 삼화당정판은 패키지 인쇄 및 제작, 팜플렛, 브로슈어, 라벨인쇄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종합인쇄사업을 펼치고 있다.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과 철저한 품질제일주의를 실천해 왔기에 20년을 갓 넘긴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사옥의 준공, 품질 제일주의를 내세운 ISO 인증 획득 등 굵직한 족적을 남겨 놓았다. 99%가 100%를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인정 받고 있는 삼화당정판은 최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 기업부설 SHD연구소

2년여 전부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획과 시장조사를 진행해온 삼화당정판은 지난 2월말 SHD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대수롭지 않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관련 부서인 중소기업청으로 출퇴근 할 정도로 열심히 드나든 결실이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방향성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에 담당 공무원이 조언을 해주었고 순발력있는 경영과 결단으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 끝에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사실 인쇄업계에서의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는 물론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현재 진행중)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에 속한다. 그 정도로 인증받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인쇄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나 개발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SHD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은 중소기업청, 서울시, 건국대학교 등과 긴밀한 협력을 거쳐 추진되었으며 해마다의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3년 과정의 사업으로 승인 받았다. 이제 시작한 단계이지만 향후 전개에 따라서 인쇄업계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잉크자동조색기의 개발이 이번 프로젝트의 과제이다. 현재 인쇄업체의 공정자동화가 많이 진전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잉크조색 부문은 숙련된 기술자의 능력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는 것이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삼화당정판 이봉수 소장의 설명이다.

“잉크조색은 기술자의 양성이 힘들고, 눈대중으로 조색을 하게 될 경우에 정확한 잉크 사용량의 측정이 이뤄



지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잉크량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조색공정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기청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서울시, 건국대학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년이상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는 최근 이뤄졌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면서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심사 준비, 벤처기업 인증 준비 등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은 아직 연구의 시작 단계에 불과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업계가 지향해야 할 바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

고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SHD기업부설연구소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구를 하게 되는 자동인크조색기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10여개사에서 시판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 수성인크에 사용되고 있으며 유성인크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은 사실상 없다는 삼화당정판의 분석이다. 이는 수성인크와 유성인크의 차이점에서 오는 것으로 외국업체들도 개발비용의 부담, 성패 여부의 불투명 등을 들어 유성인크의 개발에 나서지 않았던데 따른 것이다.

인크회사와의 협력으로 유성인크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차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면 국내 시장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 수출에 나서도 충분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구소 통해 업계에 기여하는 선례 기대

부설연구소의 설립·인가후 현재 자사연구원 6명(선임연구원1,연구원5)과 건국대 연구원 4명(선임교수1명,연구원3명)이 자동조색시스템을 연구개발중이다.

자동조색시스템은 외국의 경우 몇 개의 나라에서 고가의 대형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아서 도입 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페인트 시장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으나, 인크시장에서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자동조색시스템은 원하는 인크색상과 양을 입력하면, 인크량을 자동토출(Dispensing)하고 교반(Mixing)까지 조색공정의 자동화와 함께, 데이터와 정밀계량을 통한 신뢰성 있는 조색공정이 이뤄져서 인쇄품질의 향상은 물론이고 시간·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쇄업체의 질적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차한잔〉 이석남 대표이사

## 품질제고 위해 부설 연구소 세워



### △ 어떤 경영철학을 갖고 계신지요?

흔이 깃들게 일하자, 항상 능동적으로 활동하자,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충실하자는 4가지를 경영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좌우명이 되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후생에 많은 관

### 심을 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에서 일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경영에 매진, 개인의 발전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엄격하다고 비취질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기에 철저한 정리정돈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살수는 없는 것이기에 적절한 휴식과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직원들에게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 인쇄업계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부설연구소의 설립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듯 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전문성 있는 판단과 추진에 대한 열정을 믿고 큰 틀을 잡아주는 것까지가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 인쇄업계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타개 방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장경기의 불황, 원부자재의 가격 급등, 덤핑으로 인한 가격 붕괴, 인건비 상승 등 너무 많은 현실에 모든 인쇄업체가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한숨만 쉰다고 해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더 체계화된 품질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회사는 품질관리시스템 확립을 위해 POP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OJT교육, 외부인사 초청교육, 정기적인 우수사원 표창 등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내실을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산학 협동을 통한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토출교반장치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이 계획중이며 건국대학교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e-printing 사업에도 참여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쇄기술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